

보도시점 2026. 4. 23.(목) 배포즉시 배포 2026. 4. 23.(목)

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 체결 -
- 위조상품 대응,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데이터 교환 등 협력 대폭 확대 -
- 지식재산 장관급·고위급 회담 통해 양해각서 이행방안 및 협력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2.(수)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 21.(화)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동반자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K-상표 위조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임 빈 (042-481-5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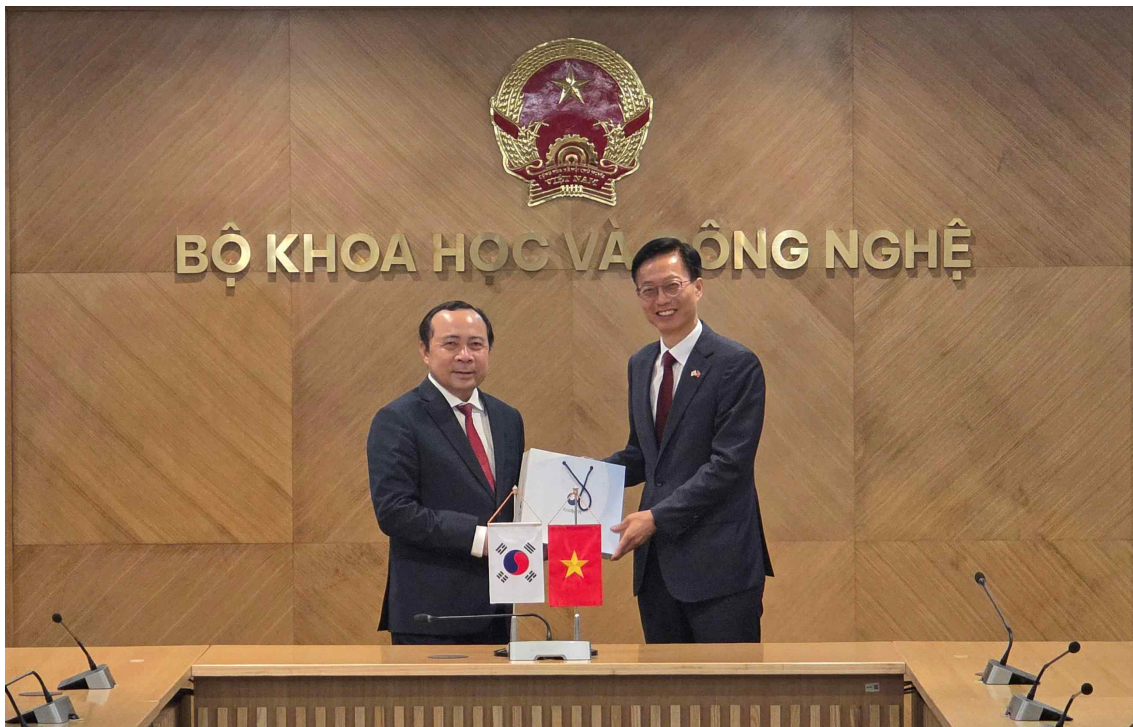
붙임 1

한-베트남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 사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이 4. 21.(화) 오후 5시 30분 베트남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를 기반으로 한 향후 양국 간 협력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1일(현지시간)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진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과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왼쪽)이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르우 호앙 룡(Luu Hoang Long) 베트남 지식재산청장이 4. 21.(화) 오전 10시 베트남 지식재산청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의 이행방안 및 향후 중점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1일(현지시간)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르우 호앙 룡(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8번째)과 르우 호앙 룡(Luu Hoang Long) 베트남 지식재산청장(왼쪽 7번째)이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